

목포 대양산단 착공 3년2개월만에 준공

협오시설 밀집지역에서 대표산단 탈바꿈...내달 3일 준공식 중국과 가까워 수출 강점...20% 불과한 분양률 높이기 과제

목포시가 서남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대양 일대 155만㎡ 부지에 2909억원을 투입·조성한 대양 일반산업단지가 착공 3년 2개월 만에 준공됐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대양산단의 준공 의미와 성과, 남은 과제 등을 살펴본다.

◇목포 미래 산업을 책임진다=목포시의 미래를 이끌 대양산단이 들어선 대양동 일대는 협오시설이 밀집돼 있어 목포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산단 조성으로 목포시의 막대한 예산투입 없이 이주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대양산단 준공은 그 의미가 크다. 총 사업비 2909억원 중 이주·보상비만 1456억원에 이른다.

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압해대교 IC와 목포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산단 진입도로 개설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442억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은 점도 큰 성과로 꼽힌다. 진입도로는 25일부터 전면 개통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지연에 따른 각종 추가 공사금액이 20억원이나 발생한다.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도 103억원이 늘어 12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포시는 진입도로 공사에서 나온 토사 활용과 분산된 공원(녹지공간)을 집약 배치하는 등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 130억원을 줄이고, 또 이자율을 5.5%에서 지속적으로 3.4%까지 낮춰 금융비용 120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250억원을 절감하는 데 성공했다. 최종적

으로 130억원을 절감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와 함께 수산·조선 중심의 목포시 산업구조가 다변화했다는 점에서도 대양산단 조성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5000명에서 1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내놓을 수 있는 성과로 꼽힌다.

◇대한민국 수산물 유통 1번지로 거듭난다=기업 입주의 성패는 사실상 물류 여건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원자재 1시간 이내 공급과 완제품 1시간 내 시장 도착'이 가능해야 한다. 물류 측면에서 대양산단은 영광~고흥에 이르기까지 1시간 대 수송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수산물 분야에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다만 공산품의 경우는 내수시장이 수도권에 집중돼 다소 불리하다. 반면 중국 상하이와는 국내 최단거리에 있어 대중국 수출에는 유리하다는 강점이 있다.

또 인근에 대학과 연구시설이 연계돼 양질의 산업인력 공급이 가능하고, 도심 내산단이 들어서 있어 주거·교육·의료·쇼핑 등 편리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저조한 분양률 해결로 지역 경제 되살린다 =최저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저조한 분양률은 해결 과제다. 현재 11개 기업에 19만5488㎡가 분양돼 분양률은 20%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역점 추진 중인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할 경우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목포시의료원은 울해도 의료취약계층 무료 검진 2000명, 아동 복지시설 무료검진 600명, 만성질환관리 사업 800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검진 1200명, 외국인 근로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 검진 200



목포 대양산단이 착공 3년 2개월만에 준공됐다. 오는 5월 3일 부지 내 산업 6블록에서 준공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진입도로 오늘 전면 개통 목포 대양산단 진입도로가 준공돼 25일부터 전면 개통한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에 따른 물동량과 차량통행 증가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조성했으며, 신설된 도로는 총 2.4km이다. 목포시와 신안 압해도를 직접 연결하고 있으며, I.C(램프)는 폭 6m, 길이 1.1km로 국도 1·2호선과 연결돼 있다. <목포시 제공>

통센터 등을 집중 배치,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의 미래를 이끌 전진기지인 대양산단은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정주 여건 등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춘 투자의 최적지"라면서 "앞으로 건설

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양산단 준공 기념식은 내달 3일 대양산단 부지 내 산업 6블록에서 개최된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 상동에 42층 아파트 들어선다

시, 건축 허가...2019년 완공

목포시 상동 평화광장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42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목포시는 "최근 42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연관부서 회람결과 건축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건축을 최종 허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에메랄드 퀸' 브랜드로 5월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이 아파트는 오는 2019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총 298세대를 분양한다.

중소형부터 대가족을 위한 팬트하우스까지 다양한 평수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입주주민의 편의를 위해 지하

1층~지하3층, 지상3층~7층까지 총 475대 규모의 주차장이 조성된다.

영산호와 춤추는 바다분수가 한눈에 보이는 등 쾌적한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목포IC와 죽림IC는 물론 국도 1·2호선, 서해안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좋다.

또 단지 주변에는 평화광장을 비롯한 달맞이 공원, 갯바위, 목포 자연사 박물관, 해양문화재연구소, 예술회관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시행사인 ㈜우리 관계자는 "건본주택은 옥암동 1365-3번지에 다음 달 오픈 예정"이라며 "최고의 서비스로 최적인 아파트를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올바른 식습관 길러요 목포대학교(총장 최일가)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정현영)에서 최근 부모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식습관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시 청사 본관에 태양광 발전 30kW 추가 설치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목포시가 올해도 청사에너지 절감을 위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하는 등 시설 보강에 나선다.

24일 목포시에 따르면 야외주차장 75kW와 본관 옥상 60kW 등 총 135kW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돼 연간 2000만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본관 도시계획과 옥상에 사업비 1억원을 들여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한다. 또 청사 내 복도나 사무실 등 노후화된 전기시설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앞서 목포시는 전국 자치단체 청사에서 에너지 절감 평가에서 지난 2014년 3위에 이어 2015년에도 전국 2위를 차지해 포상금으로 30억7000만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성과를 거뒀으며 지원금까지 포상금으로 받은 교부세만 총 147억7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목포시가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우수 청사 에너지 절감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그 비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포시는 ▲사무실 형광등 2분의1 축소 ▲청사 내 복도·화장실 조도 센서 설치 ▲태양광 발전 장치 확충 ▲냉·난방 중앙제어 시스템 운영 등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이 청사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의료원 경영 혁신 성과...개원 이래 첫 흑자

5월초엔 장례식장도 개장

목포시의료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면서 전국 지방의료원들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24일 "모든 직원이 합심해 시설 및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등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추진해 지난해에만 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은 3~4곳에 불과하다. 목포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공

보건의료사업 평가 우수기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우수기관(B등급)으로 선정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전국 지방의료원 청렴도 평가에서도 2등급 평가를 받는 등 전국을 대표하는 모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시의료원은 울해도 의료취약계층 무료 검진 2000명, 아동 복지시설 무료검진 600명, 만성질환관리 사업 800명, 찾아가는 산부인과 무료 검진 1200명, 외국인 근로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무료 검진 200

명, 저소득층 보건의료 지역연계 사업 400명, 공공 보건프로그램 사업 100명 등 5300여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목포시의료원은 또 울해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 본관 지하 1층에 774.97㎡ 규모의 장례식장을 오는 5월 초 개장할 계획이다.

장례식장 규모는 일반 분향소 2실과 무연고 분향소 1실 등 총 3실이며, 차량 5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마련돼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장례식장은 시의료원 직영 체제로 운영돼 서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목 목포시의료원 원장은 "앞으로 집단 전염병 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음압격리치료 병실을 확보하고 보건복지부 평가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해 서남권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료원은 지난 1906년 개원했으며, 지난 1986년부터 목포시 산하 지방의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창사 64주년

맛과 멋이 풍부한 남도여행으로 추억을 담아가세요!

해남 대표이사 안길호	(주)보경 대표이사 이상선	대 사장 김연삼	목포 임직원일동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직원일동	전남 임직원일동	(유)목영산업개발 대표이사 김성제	(유)천희 대표이사 박병규	근 회장 김호남	가 대표이사 조경구	(주)상그리아비치호텔 임직원일동	신안관광비치호텔(주) 대표이사 이혁영	(주)행남 대표이사 윤경석	목포 의장 조성오	목포 의장 조성오
--------------------------	-----------------------------	-----------------------	--------------------	--------------------------	--------------------	---------------------------------	-----------------------------	-----------------------	-------------------------	-----------------------------	-----------------------------------	-----------------------------	------------------------	------------------------